

Swiss Toilet

스위스

마터호른의 화장실



글 |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MBC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협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뒷골목 엿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vs카리스마', '이견희
소설: '외인부대원 코레앙

차는 산간마을로 접어들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뒤덮인 스위스에도 눈부신 봄이 왔다.
해발이 높아 태양은 불같이 뜨거운데,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다.
마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뜨거운 카푸치노를 먹는 듯한 기분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봄이 더 찬란하게 느껴진다.

차는 산간마을로 접어들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뒤덮인 스위스에도 눈부신 봄이 왔다. 해발이 높아 태양은 불같이 뜨거운데,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다. 마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뜨거운 카푸치노를 먹는 듯한 기분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봄이 더 찬란하게 느껴진다.

스위스의 산간마을에도 봄이 와서 들판은 온통 초록색으로 덮였다. 스위스에는 높은 산이 네 개 있다. 융프라우(4158m), 아이거(3970m), 마터호른(3820m), 맨히(4099m)이다. 모두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들이다. 아이거 북벽은 칼날 같아서 알피니스트의 도전대상으로 유명하고, 만년설의 마터호른 역시 알피니스트스들에겐 무한한 설레임을 주는 산이다. 마터호른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체르마트(Zermatt)이라는 곳까지 가야한다.

체르마트는 마터호른 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 거기서 나는 차를 버렸다. 마터호른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차를 여기에 놓고 가야한다. 자동차는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체르마트 역에는 마터호른 산 아래의 마을까지 올라가는 전기기차가 다닌다. 환경보호에 이토록 철저한 게 스위스 사람들이다. 42스위스프랑(5만여원)을 내고 전기기차를 탔다. 해발 4천미터의 산 아래의 마을까지 전기기차는 힘차게 오른다. 산의 협곡 사이에는 만년설이 녹은 물이 석회석과 섞이면서 부영계 용솟음치고 있다. 45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마터호른 산 아래의 마을, 고르너그라트에 도착했다. 역전에는 전기자동차와 마차가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모두 무공해 교통수단이다. 역전 앞으로 나왔다. 식당, 레스토랑, 펍, 등산용품 가게, 스키가게, 슈퍼마켓이 늘어진 거리. 등산용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그 유명한 아미니아프가 주욱 진열되어있다. 스키가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산중 마을 치곤 제법 변화하다. 마터호른의 봉우리는 만년 설 산으로 알피니스트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봄, 여름에는 스키어들의 천국이 된다. 과연, 길거리에는 봄철의 스키어들이 스키를 메고 부지런히 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인다. 모두 유럽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다. 스키 복들이 화려한데 거기가 금발, 은발이니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가방을 던져놓고 마을 구경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역전에서 3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앰버서더 호텔이 있다. 앰버서더 호텔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인데, 이곳의 앰버서더 호텔은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스위스 풍의 단정하고 단아한 건물이다. 거기에 가방을 던져놓고 마을 구경에 나섰다.

봄의 마터호른은 스키어들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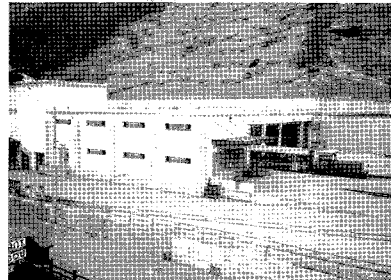
제일 먼저 할 일은, 우선 생맥주 집에 들러 간단하게 목부터 축이면서 동네의 분위기부터 파악할 일이다. 슬슬 걸어서 산 쪽으로 올라갔다. 전기자동차가 다니는 아스팔트길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더니 이내 골목이



▲ 스위스 산악열차의 승무원



▲ Zermatt이 거리-무공해 전기차가 다닌다 (우측의 검은색 차량)



▲ Zermatt에서 산까지 가는 기차(무공해)



Zermatt 호텔앤버서더 전경 ▲



Zermatt 호텔앤버서더 화장실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시설들이 좋게 설치되어 있다.



Zermatt 앤버서더 호텔앤의 주방시설 ▲

된다. 골목 안에는 그야말로 펍과 레스토랑, 작은 커피숍이 한집 건너 있는데 그중 제일 사람이 북작이는 펍에 들어섰다. 스위스 전나무 냄새가 물씬 풍기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인데, 스키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삼삼 오오 서서 맥주 잔을 기울이고 있다. ‘기네스 생맥주, 하프 파인트’. 주문을 하니 앞치마를 두른 스위스의 아가씨가 씩씩하게 요구에 응한다. 곁에서는 금발의 젊은이 두 사람이 스키바지를 입고 뭔가 열심히 떠들고 있다. 목덜미에 땀이 나고, 바지가 젖은 것으로 보아 이미 한차례 스키를 즐기고 온 모양이다. 눈길에 마주치자 금발 젊은이 한사람이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네 온다. 그와 맥주 잔을 부딪혔다. ‘어디서 왔니?’ 하고 물으니 ‘네덜란드’ 하고 대답해준다. 젊은이와 슬슬 얘기를 시작했다. 직업은 건축가이며 나이는 28세. 1주일간 휴가를 내서 혼자서 스키를 타러 왔단다. 곁의 젊은이도 여기 와서 만난 사이. 벌써 며칠째 스키를 탔는데 그 사이 친구를 꽤 사귀었는지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있다. 대충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스름이 깔린다. 더 늦기 전에 동네 구경을 하러 나왔다.

등산로 초입까지 올라갔는데 저녁이라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 저녁의 석양이 만년설의 봉우리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다. 마터호른의 칼날 같은 능선이 석양을 받아 수줍은 새색시 같이 변했다. 저 산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알피니스트가 이 길을 밟고 올라갔을까. 등산로 초입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

알피니스트의 묘지

촛불이 몇 개 켜져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산을 오르다가 죽은 알피니스트들의 무덤이다. 1백 여명쯤의 이름이 조그만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엔 놀랍게도 한국인의 이름도 있다. 김 00.1973년에 사망, 당시 나이는 27세.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 당해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 마음속으로 그의 명복을 빌었다.

마을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레스토랑으로 들러갔다. 저녁 시간이어서 호프만 같이 풍성한 50대의 주인이 바쁘다. 스위스 식 스테이크와 맥주 한잔을 시키고 창 밖으로 내려앉는 알프스의 황혼을 지켜보았다.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고기 덩어리 위에 버터가 한 조각 올려져있다.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 물었더니 버터를 포크로 잡고 뜨거운 고깃덩어리 위에 살살 녹여서 먹으라고 한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으잉, 맛이 일품이다. 고기 한 덩어리와 감자 튀김에 맥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나왔다.

골목길을 내려오는데 여기서 죽은 한국인 알피니스트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호텔로 가기도 이른 시간. 지나다보니 조그만 바(Bar)가 한 곳 보인다. 대여섯발자욱 골목 안에 있는데 하얀 루바 창문에 화분을 매달아 놓았다. 문을 밀고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금발에 눈이 파아란 아가

씨가 혼자서 스탠드를 지키고 있다. 슬그머니 들어가 그녀의 앞에 앉았다. 내가 첫 손님이어서 그녀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친다. 맥주를 한잔시켰다. 그녀는 이 이방인을 턱을 괴고 바라본다. 얼굴이 주먹만하고 피부는 눈처럼 희다. 자세히 보니 기가 막힌 미인이다. 유럽인 치곤 키가 작다. 불과 160센티나 될까.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 미혼이며 이곳 출신이다. 나이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얼굴의 주름을 보니 32세쯤 되어 보인다. 내 머리 위에 금속명판이 50개쯤 다닥다닥 붙어있다. 명찰 만한 금속판엔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다. 뭐냐고 물었더니 1주일에 한 번 이상, 1년간 온 손님에게는 이 명판을 붙여준다고 한다.

어허, 거 재미있는 상술이다. 나도 하나 붙여 달라고 했더니 자주 오면 해주겠다고 한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10년간 빠지지 않고 오는 걸로 낙찰을 보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맥주 세잔을 마시고 나왔다.

호텔로 돌아오니 밤9시다. 1층의 바에서 뽕까뽕까 음악이 나온다. 다시 바(Bar)로 직행했다. 40대의 털복숭이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팜송을 부르고 있다. 스탠드에 앉았다. 스탠드 바(Bar)의 여급에게 마티니 스트레이트 더블을 한잔 주문했다. 한잔을 털어 넣었는데 기별도 가지 않는다. 다시 한잔 더. 술이 취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떨어져 죽은 한국인 알피니스트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 시신마저 여기에 묻혀버린 그의 외로움 때문이다.

스탠드바(StandBar)의 여급은 포르투갈 출신이다. 새카만 검은머리의 처녀인데, 체격은 좋지만 좀 안 생겼다. 양주를 마시다가 맥주를 마시다가 음악을 들었다. 자아,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잔. 하고 양주 한잔을 부었다. 취기가 오른다.

들자절약이 최우선인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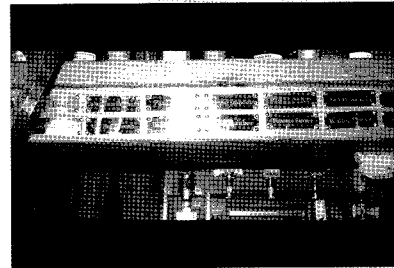
방에 돌아와서 얼마쯤 잤을까. 도무지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이 깼다. 실내의 온도계를 보았더니 영상20도. 잠을 자기에는 추운 온도이다. 온도를 올리려고 했더니 아예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호텔이다.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온도를 올리라고 했다. 프론트 직원 왈. '그게 적정 온도이다.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대답이다. 그러면서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스위스의 호텔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체로 모든 호텔이 그 온도를 지키고 있었다. 잠이 깨져 침대 끝에 앉았는데 오춨보가 당긴다. 주재없이 마시고 쓰러져 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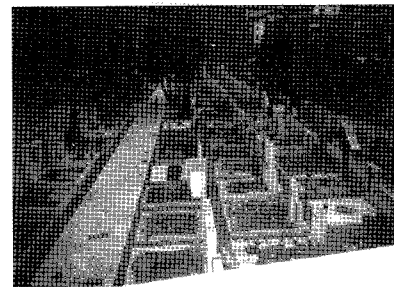
비로서 회장실에 갔다. 간단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있는 시설이다. 공간도 작다. 에너지 절약 때문인 모양이다. 하나 특이한 점은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등산객을 위한 배려이다.

스위스 깎쟁이의 나라. 근검절약의 전제들, 철저하게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 맹성들.

하지만 결코 미워 할 수만은 없는 국민들이었다. (끝)



▲ Zermatt의 숲집에 붙은 단골손님 팻말



▲ Zermatt의 산악인 묘지 (죽은 한국 산악인의 묘도 여기 있다)
▼ 마터호른 산아래 마을의 풍경

